
[서평]

생태 위기 시대의 현대미술과 지식 생산의 관계 탐구*

전혜숙 (이화여자대학교)

2015년에 출판된 『인류세 시대의 미술: 미학, 정치학, 환경 그리고 인식론 들』은 ‘Critical Climate Change(위기의 기후변화)’ 시리즈 중 하나로 Open Humanities Press를 통해 출판된 미술이론서다. 일종의 앤솔로지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 책은, 현재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예술 및 인문학연구소에서 플라스틱 윤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히더 데이비스(Heather Davis)와, 철학자이자 큐레이터이기도 한 에티엔 터핀(Etienne Turpin)에 의해 공동 편집되었다. 편집자들의 서문을 포함해 인류세 시대 미술에 대한 내용의 33개 글을 담고 있는 이 책은 단순히 인류세에 대한 담론을 기술한 글들을 모은 것이 아니다. 미술가, 큐레이터, 이론가 및 환경 행동주의자들의 작품들과 글들을 중심으로 생태 위기시대에 반응하는 현대미술과 지식 생산 사이의 관계를 탐구할 뿐 아니라, 환경문제, 미적 편향성, 인식론적 한계 및 윤리적 아포리아에 대한 긴급한 현안을 다루고 있다. 33개의 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편집자들이 직접 진행한 인터뷰들, 전 세계에서 현재 실행하고 있거나 과거에 진행했던 시각미술 프로젝트를 미술가들 자신이 설명하는 글들, 그리고 다양한 지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류세의 상황들에 대해 철학자 혹은 주요 이론가들이 진단하고 있는 에세이들로 이루어져 있다.

* Heather Davis and Etienne Turpin(eds.), *Art in the Anthropocene, encounters Among Aesthetics, Politics, Environments and Epistemologies*, London: Open Humanities Press, 2015.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 장-뤽 낭시(Jean-Juc Nancy), 다나 해러웨이(Donna Haraway), 리처드 펠(Richard W. Pell) 등의 학자들과 피나르 율다스(Pinar Yoldas) 등 세계 각국의 미술가들이 인터뷰 혹은 글의 기고에 참여했다.

인류세와 미술 사이의 관계는 여러 계층과 다양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이 책은 지적(知的) 소산구조(疏散構造)로 그러한 복잡한 관계들을 짚어보며, 추후 발생하게 될 이론들과 행동들을 위한 개념적 원심분리기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두 편집자는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인류세와 미술의 관계를 ‘시각방식’의 역할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인류세는 우선적으로 감각적 현상(sensorial phenomenon), 즉 모든 것이 감소하거나 혹은 독성을 지닌 것으로 변화되어 가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감각적 경험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가 그동안 인류세를 이해해 온 방법은 시각방식을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 인공위성의 이미지들, 기후 모델들을 통해서였으며, ‘지구 전체가 남긴 다른 유산들을 ‘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셋째, 미술은 ‘훼손된 세계에서 살아가기(living in a damaged world)’에 대한 체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해왔다. 다시 말해 과학적 객관성, 정치적인 도덕주의, 심리적인 우울함 등의 체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담론적이고 시각적이며 감각적인 전략들의 영역을 아우르는 도덕을 넘어선(non-moral) 형식의 발화를 통해 인류세에 대한 경험을 제공해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만다 보에츠키스(Amanda Boetzkes)는 “생태학, 시각, 그리고 신경학적 체계(Ecology, Vision, and the Neurological System)”에서, 세심하게 환경을 읽고 느껴온 에스키모 이누트(Inuit) 공동체 멤버들이 지구 온난화에 의한 북극풍경의 변화(하늘과 구름의 움직임, 바람의 방향, 얼음의 두께, 동물들의 미묘한 행동변화 등등)를 신체의 지각으로 알아가는 현상학적 경험의 다큐멘터리인 미술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다. 인류세는 에스키모인들의 ‘보는 방식’을 바꾸고 있을 뿐 아니라 지각 그 자체의 기준을 신경학적으로도 변경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에츠키스는 지질학적 시대이면서도 문화적 현상이기도 한 인류세가 생태

학적 활동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해석, 즉 신경학, 생태학, 시각성 사이의 관계를 통해 변형된 행동유도성(자연에 대한 새로운 지각, 인식, 상호작용)을 이끌어내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류세 뿐 아니라 자본세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안하고 있는 해러웨이의 인터뷰 “인류세, 자본세, 출루세(Anthropocene, Capitalocene, Chthulhocene)”와, 자본과 기술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인공자연으로 둔갑한 싱가포르의 자연을 설명한 나타샤 마이어스(Natasha Myers)의 프로젝트 “에덴의 종말: 싱가포르의 파멸적 식물관광(Edenic Apocalypse: Singapore’s End-of-Time Botanical Tourism)”, 그리고 인류에 의해 변화된 자연, 따라서 이미 자연적이지 않은 자연을 일컫는 포스트네이처(Post-nature)의 개념을 사용한 리처드 펠의 “포스트네이처의 역사(PostNatural Histories)” 등 흥미로운 내용들이 인류세 시대 미술을 이해하는 새로운 이론들로서 눈에 띈다.

네덜란드의 지구대기화학자인 폴 크뤼첸(Paul Jozef Crutzen)이 ‘인류세’라는 말을 제안한 지 벌써 20여년이 지났다. 그가 2000년 한 논문에서 지질학적 명칭처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이 용어는 이젠 낯선 용어가 아니게 되었으며, 많은 이론들에 공공연히 사용되면서 인류가 만들어 온 기술발전과 그로 인한 자연 파괴의 양면성을 한꺼번에 의미하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 돌로 시작된 인간의 도구 사용과, 농경과 사육재배를 통해 시작된 자연에 대한 인류의 개입은, 유전공학과 인공지능처럼 지구와 지구상의 많은 생명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들로 발전했다. 이는 우리의 지질학적 시대가 더 이상 홀로세(Holocene)가 아닌 인류세라 지칭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근거다. ‘인류세’라는 말 그대로, 지금은 인류가 지구상의 모든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역사적 시대지만, 반대로 그로 인해 파괴된 환경과 기후 등 지구의 변화에 의해 인간이 힘들게 살아야할 시대로, 지구상의 모든 것에 미친 인류의 개입을 비판하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닌다.

그런데 이 용어에는 인간이 만든 과학적, 생태적, 자연적인 문제 이외에도

그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정치,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도 포함된다. 해러웨이는 인류세라는 용어 이외에 '자본세(Capitalocene)'라는 정치 경제적 의미를 내포한 지질학적 명칭을 제안하고 있다. 그녀는 인류세에 사용되고 있는 'anthropos'가 인류 전체를 의미하는지 혹은 호모 사피엔스만을 지칭하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고 말한다. 아마도 화석 연료를 태워서 쓰는 인간(산업적 인간)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테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글로벌 자본과 글로벌 사회국가를 형성한 인간이 정확하게 이에 해당되며, 그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말해주는 것이 '자본세'라는 것이다. 해러웨이는 지구상의 멸종과 자원 고갈도 모두 자본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면서, 인류세라는 말을 좀 더 복합적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그 외에도 해러웨이는 출루세(Chthulucene)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안한다. 출루세는 환경적 재난이 지나가고 난 후 난민이 된 인간과 비인간의 공생시대,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지니고 있어서 전부를 알 수 없는 시대, 혹은 끝나지 않는 시대, 인간과 비인간이 힘을 모아야 할 시대다. 이를 위해 지구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가이아(Gaia) 같은 옛 신들의 이름을 가져온다. 이제는 인류세의 쓰레기와 자본세의 극단적인 쓰레기를 모으고 혼합된 앗상블라주(assemblage)의 쓰레기더미 위에서 인간이 자연과 균형 및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간, 출루세라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이제 정말로 다른 종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살도록 애써야 하는 현재적 혹은 미래적 시대를 말한다.

해러웨이가 지적했듯이, 인간이 자연과 맺는 관계에서 자본과 기술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에 대한 재미있는 사례를 분석한 나타샤 마이어스의 글도 눈에 띈다. 1950년대 이래 'green' 경제정책에 따라 도시를 'Garden City'로 만들기 시작한 싱가포르의 예다. 싱가포르의 대규모 식물정원들과 수많은 'green 여행 사이트'는 시민들과 여행자들의 중요한 볼거리가 되어왔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원래 있던 늪지대의 종들 대신에 침습성의 종들이 들어왔으며, 바다가 대규모로 개간되었다는 사실은 간과되어왔다. 거의 모든 자연이 시물레이션, 즉 인공자연(artificial nature)으로 조성된 싱가포

르의 자연은 수조원이 들어간 식물관광 인프라 ‘The Garden by the Bay’에서 잘 볼 수 있다. 나무 형태를 본뜬 수직적 정원의 클러스터들이 풍경에 간간히 끼어든다. 이 50미터 높이의 ‘Super Tree’들은 공중으로 연결되고 거기에는 레스토랑도 있다. 이곳은 태양열을 모으고, 도시의 쓰레기를 태워 전기를 얻고 소각로를 통해 열과 가스를 얻는 장소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기후-통제-온실(climate-controlled-conservatories)’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공학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기후는 싱가포르의 타는 것 같은 더위에서도 다양한 자연들을 모으고 소유한다는 제국주의적 충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마이어스는 싱가포르의 이러한 자연에 대한 극도의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적 비전은 이른바 생태적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담론을 내세운 덕분에 규제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되는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로 자리 잡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경제성장과 지속가능성 사이의 내재된 모순의 지점에서 바로 그 모순 자체를 지워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싱가포르처럼 인공자연을 만들어낸 세계 곳곳의 정원들은 생태주의를 조작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인공자연의 생생한 시뮬레이션의 매력에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는 그곳들은 해러웨이가 “절망의 구렁텅이(slough of despond)”라고 부른 허구적이고 끈질기며 정치적인 인공주의(artificialism)의 장소”이기도 하다. 자연의 변형과 복제와 허구라는 인류세의 불안들이 그녀가 ‘자본세’라고 부른 시대의 효과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리처드 펠(Richard Pell)은 선택재배 및 유전공학에 의해 강제적으로 유전자 변형된 유기체들을 수집하여 ‘PostNature’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 책에는 그의 인터뷰를 통해 포스트네이처와 포스트내추럴 히스토리 센터(PostNatural History Center)에 대한 의미와 의의가 설명되고 있다. ‘포스트휴먼’이 변화된 인간 혹은 인간 이후의 인간을 의미한다면, ‘포스트네이처’ 개념은 인류에 의해 변화된 자연, 그래서 이미 자연적이지 않은 자연을 일컫는다. 서구에서 자연은 늘 존재론적으로 인간의 ‘대상’이었고, 이원론적인 틀 안에서 인간과 대립되어왔다. 그로 인해 자연은 항상 인간의

필요에 따라 이용되고 개발될 수 있었다. 따라서 자연은 인간과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었으며, 자연에 관한 한 자연적인 것은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1만 년 전부터 야생식물과 동물들을 잡아다 키우는데 성공한 인류는 동물과 식물들의 속성을 인간이 원하는 대로 바꾸어 키움으로써, 그것들의 진화적 경로에 영향을 주어왔으며, 살아있는 세계의 형태와 기능을 변경시켜 왔다. 'PostNatural'이라는 용어는 인간에 의한 사육, 선택재배, 유도 돌연변이, 유전공학을 통해 변형된 것들로, 농장의 동물들, 애완동물들, 유전자 변형된 곡물, 경마용 말, 장식용 꽃들, 실험실의 유기체들에 해당된다.

그런데 펠은 자연사박물관에 전시된 생명 형태들과는 달리, PostNature의 유기체들은 문화의 도구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한다. 그것들은 인간의 욕망, 욕구, 권력, 공포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체현물들(embodiments)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포스트네이처'라는 용어에는 문화, 자연, 생명기술 사이의 복잡한 상호관계가 얽힌 정치, 사회, 경제적인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용어는 오랜 역사 속에서 인간개입에 의해 변형되어 온 자연이 생명자체로 여겨졌다고보다는 일종의 문화적, 경제적 도구로 사용되어왔음을 의미한다. 호모 사피엔스에 의한 자연의 변화양태는 대부분 인간이 생활해 온 사회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농경과 가축 사육을 통해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석유를 비롯한 천연자원의 개발로 인류는 더 없이 편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려왔기 때문이다.

이 책에 소개된 많은 글들과 미술 프로젝트들은 인류세 시대에 변화된 지구의 모습을 독특한 시각적 관점에서 그려낼 뿐 아니라, 인류가 지구를 해방시키고 모든 비인간 생명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당위성과 그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 미술평론가인 루시 리파드(Lucy Lippard)가 말했듯이, 환경에 대해 포괄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다른 책들과는 달리, 이 책은 우리 시대 가장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 매우 지적이면서도 상상력이 뛰어난 유익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녀는 이 책이 인류세에 대한 관심과 과학적 사실이 아닌 정서적 측면에서 재구성하면서, 미술 프로젝트 자체와 이론들을 통해 우리의 포스트휴먼적 존재의 핵심적 문제들을 건드리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책은 인류세의 미래를 살아갈 학문후속세대에게 더욱 절실하게
혹은 흥미롭게 읽혀질 수 있을 것이다.

